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사랑과 복음 담은 OCC 선물상자를”

(Operation Christmas Child)

■ 8월 1일부터 2025년 OCC 선물상자 사역 본격 전개하는 국제구호단체 사마리안퍼스 한국지부

사마리안퍼스(국제 본부 회장: 프랭클린 그레함) 한국지부가 8월 1일부터 2025년 OCC 선물상자 사역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국제 구호 단체 사마리안퍼스는 1970년, 전쟁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자신을 바치던 밥 피어스(Bob Pierce)에 의해 설립되었다. 1978년, 밥 피어스가 세상을 떠난 뒤 프랭클린 그레함(Franklin Graham)이 회장 겸 이사장으로 취임하였으며, 프랭클린 그레함은 아버지 빌리 그레함에 이어 받은 복음의 열정과 선교지에서 경험한 생생한 현실을 바탕으로 사마리안퍼스 사역을 더 확장해 가고 있다. 사마리안퍼스의 사명은 ‘모든 일을 통해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고문받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OCC 선물상자 사역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선물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으로, 선물 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은 복음을 듣고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되어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님의 제자가 성장하게 된다. ‘OCC’는 ‘Operation Christmas Child’의 약자로 한국어로 의역하면 ‘크리스마스 어린이 선물 대작전’이다. 이 사역은 1993년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보스니아 어린이들에게 신발 상자에 선물을 채워 보낸 일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17개국 이상의 2억 3천 명이 넘는 어린이들에게 선물 상자를 전달하며 복음을 전했다. 그중 4,600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제자 양육 과정에 참여했으며, 2,400만 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제자 양육 과정을 마친 어린이들은 가족과 이웃,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이 되고 있다.

단순한 나눔을 넘어, 복음 전파와 제자화까지 OCC 선물상자 사역의 가장 큰

특징은 참여자가 직접 기도하며 준비한 하나의 선물 상자가 한 명의 어린이에게 전달된다는 점이다. 선물 상자를 받은 어린이의 성별과 나이(2~14세)를 선택하여 선물을 준비하면, 선택한 대상의 어린이에게 상자가 전해진다. 선물 상자에는 학용품, 의류, 장난감, 위생용품 등 어린이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담을 수 있으며, 직접 쓴 손편지와 사진을 넣어 따뜻한 마음도 전할 수 있다.

선물 상자가 어린이들에게 전해지는 현장은 더욱 뜨겁다. 사마리안퍼스와 협력하고 있는 전 세계 지역자들은 교회에서 전도

있으며 제자 양육을 마친 어린이들은 수료증과 함께 신앙성경을 선물로 받는다.

OCC 선물상자 선물 상자를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2024년, 파라과이(Paraguay)에서 전도 집회를 열고 선물 상자를 나누어 준 라몬(Ramon) 목사는 어린이들이 상자를 여는 모습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라몬 목사는 6년 전, 미약 문제로 심각한 지역에서 자신의 집을 확장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양육 과정을 마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에콰도르(Ecuador) 어린이들.

1993년 보스니아 전쟁고아들 신발상자에 선물 담아 전달한 게 계기
170개국 2억 3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선물상자와 복음 함께 전해

1970년 밥 피어스 설립, 빌리 그레함 아들 프랭클린그레함으로 이어져
어린이 4,600만 명 제자양육 과정 참여, 그중 2,400만 명 예수님 영접



지난해 프로세싱센터에서 상자를 검수한 자원봉사자들.

집회를 열어서 지역 어린이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선물 상자를 나누어 주며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제자 양육 과정에 초대하여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다. 제자 양육 과정은 복음 알리기, 복음 안에서 성장하기, 복음 전하기의 12마로 구성되어

이렇게 준비된 사역자를 통해 선물 상자를 받은 알렉스(Alex)는 전도 집회 중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했다. 알렉스가 받은 선물 상자 안에는 축구공, 색연필, 공책, 장난감 등이 들어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제일 좋아요”라며 복음

이 설립된 소책자를 가장 특별한 선물로 받았다.

조지아(Georgia)에 사는 티코(Tiko)는 8살 때, 전도 집회에서 OCC 선물상자를 받고 제자 훈련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단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티코는 신학교에 다니며 어린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예비 인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OCC 선물상자가 전해지는 순간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며, 선물 상자를 받은 어린이들을 통해 이웃과 지역 사회에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할 수 있는 국제 어린이 선교

OCC 선물상자 사역은 교회의 온 성도가 함께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교회학교, 장년부, 장년

부 등 모든 부서가 함께 OCC 선물상자를 준비하며 세대 간 연합을 이루는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선교와 나눔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귀한 교육의 장을 열 수 있다. 또한 선물 상자를 받은 어린이들과 제자 양육 과정을 위한 기도 모임을 세울 수 있으며, OCC 선물상자를 통해 전 세계 교회의 전도 집회와 개척 사역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구촌 복음화에 함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드롭센터’라는 선물 상자 수거 거점 역할을 하며, 준비한 선물 상자를 교회로 가지고 오는 지역 사람들과 소모하며 교회 사역을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인의 역할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봉사 활동

교회 혹은 단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OCC 선물상자 사역에 함께할 수 있다. 사마리안퍼스의 기도 파트너가 되어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담당할 수 있다.

OCC 선물상자와 관련된 자원 봉사자로도 활동할 수 있다. 각 참여자가 만든 선물 상자는 연말에 프로세싱 센터(Processing Center)에 모이게 되는데, 이곳에서 봉사자들이 선물 상자 안에 어린이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물건이 있는지 검수하고 해외까지 상자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찾아지거나 상한 상자를 보수한다.

2025년에도 계속되는 OCC 선물상자 사역

올해 OCC 선물상자 신청은 8월 1일부터 사마리안퍼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준비한 선물 상자는 수집 기간인 11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가까운 드롭센터에 직접 전달하거나 택배를 이용해 사마리안퍼스 물류센터로 보내면 된다. 2025년, 한국에서 모인 선물 상자는 몽골, 필리핀, 캄보디아에 전달될 예정이며 전 세계적으로는 100개국 이상의 어린이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앞으로도 OCC 선물상자 사역은 교회의 단체, 개인 참여를 통해 단순한 선물 전달을 넘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복음과 희망을 전하는 글로벌 선교 운동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2024년 지역에서 OCC 선물상자를 수집하는 ‘드롭센터’를 운영한 종은나무교회.



제자양육과정에 참여한 벨리즈(Belize) 어린이들.

OCC 선물상자 더 알아보기!

선물상자로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국제 구호 단체 사마리안퍼스는 OCC 선물상자를 활용해 복음이 닿기 어려운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니다.

OCC 선물상자를 신청해 주세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OCC 선물상자

사마리안퍼스 서울 종로구 종로47 SC빌딩 13층 | 02-2105-1800 | www.samaritanpurse.or.kr